

# 사고력 평가 중심의 공무원 국어시험 개선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Civil Servant Korean Exam Focusing on Thinking Ability Evaluation

오세정\*\*

**국문초록** 본 논의는 공무원 국어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공무원 국어시험의 변화의 방향성과 목표는 뚜렷하다. 그동안 국어시험이 '일반교양'으로서 지식을 묻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운동능력'을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달리 말해 국어로 된 지문을 통해 사고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력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어시험의 체재를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여기서 평가 대상인 사고력 영역을 범주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논의에서는 기본 국어능력(기초표현능력/기초어휘능력)과 사고력(이해능력/추론능력/비판능력)으로 체계화하였다. 실제 문항 개발은 각 영역의 성격에 맞게 유형화되어야 하며, 문항 구성의 형식성을 갖추어야 하고, 배경지식의 개입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국어시험의 정체성과 위상을 고려하여, 국어 지식이나 국문학 관련 지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공무원시험, 국어시험, 사고력 평가, 공직적격성평가, 기초국어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비판능력

- 차례**
1. 서론
  2. 현행 공무원 국어시험 문항의 유형과 성격
  3. 공무원 국어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4. 사고력 중심의 국어시험 체재 구축 방안
  5. 결론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공무원시험 응시는 가장 일반적인 선택지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공무원시험, 특히 공통 시험과목인 국어시험에 대한 불만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마디로 공직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검증하는 실효성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취업을 위한 각종 시험의 기본 성격은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능력 점검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국어시험의 경우 한국어 어법이나 문법 지식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한국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주로 평가해 왔다. 여기에 더해 말하기·듣기·쓰기·읽기와 같은 의사소통 영역의 항목을 설정하여 관련 시험 문항을 개발하였고, 문학이 아닌 다른 영역의 글을 중심으로 글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하였다. 그래서 국어시험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문법/문학/비문학 문제로 크게 3분한 범주 체계가 현재에도 관

## 1. 서론

직업적 안정성을 높은 가치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늘 높다. 오늘날 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의 변화로 인해 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하는 응시생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을 졸업

- \* 이 논문은 2024년 한국연구원 춘계 학술대회의 "한국 공직 시험의 문화사-국어 관련 공직 시험의 문제점 검토와 개선안 모색"의 기획 주제 중 하나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하였음.
-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용적으로 쓰이고 있다.<sup>1</sup> 국어시험은 주로 국어와 국문학에 관련된 지식을 암기한 것에 대한 평가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평가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sup>2</sup> 이에 따른 변화의 방향성은 뚜렷하다. 국어과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나 지식을 ‘암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사고’하는 것으로 평가의 대상과 시험의 목표를 바꾸자는 것이다.

공적 시험에서 이른바 ‘암기력’ 평가에서 ‘사고력’ 평가로의 전환은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대입시험에서 1994년에 ‘학력고사’의 명칭이 ‘수학능력평가’로 전환되었고, 공직시험에서는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 2005년 행정고시 1차 시험이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전환됨으로써 변화의 본격적 시작을 알렸다.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도입은 최근 평가 방식의 경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새로운 평가 방식의 변화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채용시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까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공무원 국어시험이 최근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다가, 2023년도에 이르러 시험의 성격이 바뀔 것이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다. 2023년 11월 20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시험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

로 바뀌며, 특히 국어과목에서는 “사고력 검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sup>3</sup> 이에 본 논의는 공무원 국어시험의 ‘사고력 중심 평가’로의 올바른 전환을 위해 기존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현행 공무원 국어시험 문항의 유형과 성격

현행 공무원 국어시험은 4지선다형 총 20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 국어시험의 문항 유형은 평가 범주나 대상을 기준으로 평가 지식의 출처 내지 소재가 무엇인가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어문법/문학(독해)/비문학(독해)’ 문제로 범주화한다. 또 다른 유형화의 방식으로 평가 대상 지식의 성격을 기준으로, 즉 암기하고 있는 정보를 묻거나, 지문을 읽고 사고한 정보를 묻는 ‘암기형/사고형’ 문제로 나눌 수도 있다. 최근 출제된 공무원 국어시험의 실제 문항을 살펴보자.

먼저 한국어의 어문법 등 국어의 규범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자.

**문제 1.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 다른 법이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 크지 못한다.
- 남부 지방에 홍수가 ㉢ 나서 많은 수재민이 생겼다.
-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 아닐까?

- ① ㉠, ㉡      ② ㉡, ㉢      ③ ㉢, ㉣      ④ ㉣, ㉤

[2019 국가9급]

1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 같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은 현행 국어시험에서 독립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이 영역의 문제는 대부분 대화나 글이 지문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현 시험 체제에서 비문학 독해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2 공무원 채용제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이 주장하는 문제점 중 대표적으로 “단순암기 위주의 시험으로 문제해결 능력 측정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양현오, 황성원,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부처별 자율채용제도 도입의 검토』, 한국행정연구원, 2009, 36쪽).

3 인사혁신처,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9급 공무원 시험 출제기조 바꾼다」, 보도자료, 2023.11.20.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29&mode=view&cntId=3753&category=&pageIdx=](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29&mode=view&cntId=3753&category=&pageIdx=)

문제 2. 두 한자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광정(匡正) - 확정(廓正)    ② 부상(扶桑) - 함지(咸池)
- ③ 중상(中傷) - 비방(誹謗)    ④ 갈등(葛藤) - 알력(軋轢)

[2016 국가9급]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문제 3.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수빈은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수빈은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③ 수빈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 ④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2019 국가9급]

문제 1은 한국어 단어의 ‘품사(品詞)’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이다. “다른”, “크지”, “나서”, “허튼”, “아닐까”의 단어들 중 같은 품사로 묶인 것을 선지에서 고르라는 것이다. ‘다른’은 형용사, ‘크지’는 동사, ‘나서’는 동사, ‘허튼’은 관형사, ‘아닐까’는 형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문항은 한국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품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사 자체에 대한 정의나 용법뿐 아니라 단어의 기본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 2는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짝지어진 단어가 리 어떤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sup>4</sup>

“광정(匡正)”은 ‘잘못된 것이나 부정(不正) 따위를 바로잡아 고침’이라는 의미이고, “확정(廓正)”은 ‘잘못을 바로잡음’이라는 의미이다.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동쪽 바다’라는 의미이고, “함지(咸池)”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이라는 의미이다. “중상(中傷)”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함’이라는 의미이고, “비방(誹謗)”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이라는 의미이다. “갈등(葛藤)”은 ‘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이라는 의미이다. “알력(軋轢)”은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의 의미이다. 선지에서 “부상(扶桑)-함지(咸池)”만 의미가 대립하는 반의 관계이고 나머지는 의미가 유사한 유의 관계이다. 이 문항은 한자어의 의미뿐 아니라 반의 관계와 유의 관계 등의 의미 관계를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문제 3은 ‘화법’의 영역, 즉 ‘말하기/듣기’에 관해 묻고 있다. 이 문제는 물음(질문)에서 “공감적 듣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해당 영역에서 쓰이는 특수한 개념어인지, 일반적인 문항의 물음에서 사용하는 지시적인 용어인지가 모호하다. 이 용어에 대해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문을 통해 이 문항이 묻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발화를 듣고 이에 반응하는 것이 지문과 선지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면 이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물음은 특정한 지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문과 선지의 부합 정도를 묻고 있다.

다음으로 문학작품을 소재로 한 문항들을 보자.

4 이 문항의 한자어 어휘는 모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www.kci.go.kr>)을 근거로 하여 의미를 제시하였다.

stdict.korean.go.kr/)을 근거로 하여 의미를 제시하였다.

문제 4.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二月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ㅅ블 다호라 / 萬人 비취실 즈시쌌다 아으 動動다리 / 三月 나며 開호 아으 萬春 들윗고지여 / ㉡미 브롤 ㉢즈슬 디너 나섰다 아으 動動다리 /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꺾고리새여 / ㉤므슴다 錄事니문 냇 나를 닛고신더 動動다리  
- 작자 미상, 「동동(動動)」에서

- ① ㉠은 '견'을 의미한다.
- ② ㉡은 '모습을'을 의미한다.
- ③ ㉣은 '잇어'를 의미한다.
- ④ ㉤은 '무심하구나'를 의미한다.

[2021 국가9급]

문제 5.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려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푸줏간에서는 한쪽 불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 툄만한 흑이 달리고 그 흑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홀아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말뚝뚝으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 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충알처럼 내뺐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덩석 베어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오정희, 「중국인의 거리」 중에서

- ① 어머니의 주위에 대한 '나'의 수용
-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2017 국가9급]

문제 6.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歸天)」

- ①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 ②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 같다.
- ③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
- ④ 엽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2016 국가9급]

문제 4는 문학작품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관련된 정보를 묻는 이른바 '문학 독해' 유형에 속한다. 제시된 문학작품은 고려시대 시가(詩歌)로 알려진 <동동(動動)>으로, 문항은 이 작품에서 쓰인 고어(古語)의 의미를 묻고 있다. 달리 말해, 고어를 현대어로 바꿔쓰기를 요구하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표기법으로 기록된 고전시가 속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문

이 주어지는 문항의 경우는 독해 영역의 문제로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데, 문제 3은 형식상 지문이 주어졌을 뿐 고어로 표기된 단어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다.

문제 5는 소설의 일부를 지문으로 내고 지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이 문항은 물음 자체가 지시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선지가 가리키는 대상의 범주가 고정되지 않는다. 선지 ①은 그 자체의 표현이 명징하지 않은데, 소설 속 인물인 ‘나’의 수용 태도인지, 수용의 정도인지 알 수 없다. ②는 등장인물의 태도, ③은 소설 속 시공간 배경의 특성과 역할, ④는 등장인물의 정서이다. 물음에서 ‘것’이 지시하는 바가 이처럼 소설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지칭하고 있어 물음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①은 “나”의 수용”이 어떠한다는 진술이 없기에 단정적으로 정오(正誤)를 확정할 수 없다.

문제 6은 시(詩)를 대상으로 시어(詩語)가 “상징하는 것”을 묻고 있다. 문항의 물음에서 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묻는 것이 아닌, “상징”하는 바를 물음으로써 이미 문학적 배경지식이 쓰이고 있다. 이 문항의 문제점은 ‘상징’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하나로 고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징의 사전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標識)·기호·물건 따위”이다.<sup>5</sup> 그렇다면 이 문항은 지문에서의 “이슬”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바를 찾고, 다시 선지를 통해 “눈물”, “나뭇잎”, “꿈”, “구름”이 각각 상징하는 바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슬”의 경우는 시 작품 속에서 앞뒤 맥락을 통해 상징하는 바를 추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지는 한 문장만 주어진 채 그 속에서 단어의 상징하는 바를 추리해야 한다. 선지만으로 정답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선지가 문학작품에서 발췌한 경우라면 이 문항

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이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문학작품 이외의 글, 즉 비문학 지문을 대상으로 한 문항들이다.

문제 7.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인 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히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

- ①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 ②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 ③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 ④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2018 국가9급]

5 상징의 의미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을 따랐다. 여기에서는 상징의 일반적 의미와 문학적 의미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후사하다.

문제 8. 다음 보도 기사별 마무리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도기사	마무리 표현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	㉠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	㉡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 소식	㉢
연예 스캔들 소식	㉣

- ① ㉠: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 ② ㉡: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 ③ ㉢: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④ ㉣: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020 지방9급]

문제 7은 이른바 비문학 독해 유형에 속한다. 지문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을 묻는 것으로 앞의 문제들과 달리 특별한 배경지식을 요하지 않는 사고형 문제 유형이다. 문제 7은 사고형 문제 유형 중 국어시험에서 가장 흔히 출제되는,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지문과 선지의 부합 여부를 판정하는 문항이다. 이른바 사고력 중 글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제대로 하였는지를 묻고 있다. 공무원 국어시험에서 비문학 독해의 사고형 문항은 이처럼 대부분 지문의 분량이 짧을 뿐 아니라 내용도 단순한 편이다. 지문에 명시된 정보는 세 명의 화가가 새롭게 시도한 ‘미술운동’으로 그 내용이 압축 요약되어 있어 내용 파악이 용이해 답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문제 8은 체계를 갖춘 글의 형식이 아니라 표를 통해 간단한 내용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시된 기사를 통해 사고력을 평가하는 독해 유형에 해당한다. 문제 7과 달리 문제 8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어질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으로, 편의상 전자를 ‘이해력’ 평가 유형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추론력’ 평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적 이해에 대한 부합 문제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어진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해야 하기에 더 고차원

의 사고력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문의 진술 내용이 추상화되어 짧게 제시됨으로써 너무 쉬워졌다. 오히려 보도기사의 실제 내용이 실렸다면 이를 요약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질 문장을 추론해서 구성하였다면 문제의 완결성이나 형식성을 더 갖출 수 있었을 것이다.

### 3. 공무원 국어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문제 1~3은 한국어 문법, 한자어, 화법과 관련된 문항으로 다른 시험과 차별화되는 국어시험의 대표적인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사고력 평가가 아닌 국어 관련 정보와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독해 문제에 해당하는 문항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문제 4, 6 역시 순수하게 주어진 지문을 통해 사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문학 이해와 감상법에 관한 배경지식을 요하고 있다. 이런 문항들을 통해 고민해야 할 점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될 것이다.<sup>6</sup> 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학습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시험의 난이도 와도 결부된다.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시험 과목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공무원 국어 시험의 정체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어시험의 개선

6 9급 공무원의 국어시험에서 국어와 국문학 지식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도 흔히 제기되어 왔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을 중시하면서, 국어와 국문학 지식은 공무원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형래, 『직업문식성 평가로서의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분석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1, 2008. 197쪽).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어와 국문학 관련 지식을 평가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시험의 모든 문항이 직무 적합성과 일치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당 시험의 정체성과 목표에 따라 평가 대상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의사소통 능력을 필기시험에서 실시하지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다. 말하기와 듣기 능력은 구술시험에서, 쓰기는 논술시험에서 주되게 평가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필기시험에서는 읽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을 위해서는 응당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에 반응하고 수용해야 하지만 자칫 시험 자체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임명시험령>(시행 2024.4.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4.23., 타법개정)에 따르면 공무원 임명시험의 방법에서 필기시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sup>7</sup>

제5조(시험의 방법)

-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
  - 1.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2.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3.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4.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전문개정 2009.2.6]

이 법령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9급 국어시험은 필기시험에 해당하며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것이

다.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 시험은 현대의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일반교양’에 해당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암기하고 있는지를 검정하는 시험 과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일반교양에 해당하는 범위와 대상이 무엇인지 법령 자체로는 그 내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면접시험’의 경우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과 같은 능력이나 태도 등 해당 시험의 검정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일반교양’에 대한 정의나 내포적 의미는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어시험의 목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문제 1이나 2처럼, 한국어 어문법 지식이나 한자어 어휘를 일반교양 수준에서 알아야 할 지식으로 여겨왔다. 한국어를 의사소통의 매개로 쓰는 이상 어문법이나 어휘는 당연히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항으로 묻기보다는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서 물음이나, 지문을 통해서도 해당 지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의 어문법의 지식이나 원리를 몰라 해당 문항을 틀릴 수 있지만, 그 문항을 틀린 사람이 반드시 잘못된 한국어 표현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응시생들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한국어 어문법 지식을 습득하게 하려면 한국어 어문법에 대한 지문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올바른 적용과 잘못된 적용 사례를 찾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어휘를 묻는 문항의 경우도 문항 2처럼 비일상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는데 제대로 모르거나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어휘를 중심으로 정확한 의미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문장이나 문맥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교양으로서 국어 어문법 지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학 독해를 위

7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

해 필요한 배경지식은 무엇이고 그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는 훨씬 더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문제이다.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한국어 표현과 소통은 필수적이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sup>8</sup> 하지만 공무원의 기본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문학적 지식과 소양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sup>9</sup> 따라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독해를 위한 배경지식을 묻거나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한 문항 구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문제 4~6은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 문학독해 유형의 문항들이다. 형식상으로는 지문이 주어진 사고형 문제로 보이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 요구된다. 문제 4는 실제로 작품 속 단어의 의미를 묻고 있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문제 5는 문항을 이루는 물음이나 선지가 모호하게 표현되어 사실적 이해를 방해한다. 만약 이 문항이 오류가 없다면 해당 문학작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이미 숙지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문제 6은 문항의 구성이 문학작품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포함시켜 지문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물음뿐 아니라 선지마저 다의적 의미를 지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학작품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상을 위한 도구적 개념이 필요할 때가 많아 문학독해 문항에서는 배경지식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문학독해 문항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교양

인으로서 한국인이 알아야 할 문학작품이 있거나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논리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소재로 다룬 논리적인 글을 지문으로 선정하고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다. 혹은 문학작품과 분석한 글을 함께 지문으로 제시하여 작품과 글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항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비문학 독해 문항들은 국어시험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는 각종 의사소통 영역의 시험에서 사고력 평가 유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 7과 8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 국어시험에서는 지문이 너무 짧아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문항이 되지 못한다. 또한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대부분 단순한 사실적 정보에 대한 이해를 묻는 유형으로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문의 분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시험지의 분량과 시간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면, 1지문 복수 문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sup>10</sup> 지문의 분량이 확보되면 단순히 지문에 대한 선지의 부합 여부를 묻는 것 이외에 더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추론이나 비판 영역의 문항 개발이 한층 용이할 것이다.

#### 4. 사고력 중심의 국어시험 체재 구축 방안

공무원 국어시험이 사고력 평가를 위한 시험으로 제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체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어를 매개로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른 시험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조할 만한 사고력 평가 중심의 시험으로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국가

8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목적을 담고 있는 <국어기본법>([시행 2022.1.18] [법률 제18761호, 2022.1.18, 일부개정])에는 공무원의 문서 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개정 2017.3.21, 2021.6.15)

<https://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

9 국문학과 관련해서는 <문학진흥법>([시행 2023.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관련 활동을 권장·육성하는 노력을 요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와 문학이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https://www.law.go.kr/법령/문학진흥법>

10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에 공개된 예시 문항을 보면 1개 지문에 2문항이 출제된 이른바 세트문항이 2개가 있다. 지문 분량과 시험 시간의 문제를 고려한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지문은 사고력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짧고 단순하다. 사고력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다른 시험에서도 이렇게 짧은 지문으로 출제하지 않는다. 세트문항의 수를 늘리거나 시험 시간과 시험지 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관련 시험을 들 수 있다.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자질을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PSAT는 ‘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의 3개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언어논리’ 과목은 공무원 시험의 언어 관련 영역에 대한 출제의 좋은 모델이 된다.<sup>11</sup> 언어를 매개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토대가 되는 주어진 정보에 대한 객관적 ‘이해력’, 이를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은 혹은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추론력’,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평가하는 ‘비판력’으로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논리적 사고를 발휘하여 언어표현을 정확히 하는지를 판단하는 ‘표현력’까지를 갖추고 있다.<sup>12</sup>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LEET는 PSAT를 모델로 삼아 사고능력 평가시험으로 기획되었다.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3개 영역으로 시험이 구성된다. 이 중 ‘언어이해’ 과목에서 평가하는 영역은 ‘분석’, ‘추론’, ‘비판’의 3개 범주를 참조할 수 있다. ‘분석’은 지문에 명시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분별·파악·접수하는 활동, ‘추론’은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리하는 활동, ‘비판’은 지문의 정보에 대한 진위, 주장의 타당성, 글쓴이의 관점 등을 검토하는 활동이다. 즉 ‘분석’은 ‘지문 안에서 생각하기’, ‘추론’은 ‘지문으로부터 생각하기’, ‘비판’은 ‘지문에 대하여 생각하기’에 해당한다.<sup>13</sup>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능력을 체계화하여 평가하는 NCS 적성검사는 ‘핵심직무능력(3개 영역)’과 ‘기초직무능력(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핵심직무능력’ 3개 영역은 PSAT의 3개 영역과 상당히 유사하다. NCS의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은 각각 PSAT의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과 대응시킬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능력에서는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등은 국어시험과 친밀도가 높다.

오늘날 채용시험 전반에서 사고력 중심의 평가 방식은 민간기업의 채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각종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PSAT와 NCS의 영향으로 이해력, 추론력, 비판력 등의 언어논리를 바탕으로 세부 항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모두에서 직무적합성의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4</sup> 민간의 기초 직무능력은 언어논리와 수리논리로 크게 양분할 수 있는데, 언어논리에 해당하는 항목은 국어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공무원 국어시험에서 평가할 사고능력을 중심으로 시험의 체계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무원 국어시험으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으로 ‘기본국어능력’을 설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중등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기본 어문법 지식 정도는 암기해야 할 일반교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개선’이라는 전체 취지를 살려 이 또한 가장 기본적인 국어능력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범위를 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문서 작성의 원리, 어휘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는 ‘기

11 특정직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도 국어과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다. 순경채용시험에서 국어과목 도입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PSAT의 언어논리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이다(신성원, 「순경채용시험의 국어과목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2(3), 한국민간경비학회, 2023, 139쪽). 사고력 평가를 위한 국어시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어시험을 PSAT 언어논리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시험의 다른 과목과의 관계, 난이도, 응시생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PSAT가 추구하는 사고시험에 해당하는 국어시험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5년 실시되는 공무원 국어시험이 정착되면 이 시험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12 김명석, 「PSAT 언어논리영역의 성격과 성과」, 『국어교육연구』 31, 국어교육학회, 2008, 112쪽 참조.

13 민찬홍, 「사고력 시험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 『논리연구』 16(2), 한국논리학회, 2013, 276~277쪽. 이 글에서는 언어이해 과목의 인지활동 유형을 ‘어휘, 분석, 추론, 비판, 창의’로 나누었다.

14 특히 PSAT는 삼성 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의 적성검사와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므로 민간기업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 암기시험 위주의 공채 시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그 타당성 검증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 직무수행능력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최수정, 「PSAT(공직적격성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인간과 자연』 4(2), 한국인간과자연학회, 2023, 348쪽).

초 표현능력'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기초 어휘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표현능력은 PSAT의 표현능력과 같이 논리적 관계를 따져 국어 표현을 논리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원칙을 주고 적용하고 되고하기, 개요 작성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등은 단순 암기가 아닌 논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다. 기초 어휘능력은 주어진 글에서 지시하는 대상이나 문맥상 필요한 어휘를 선택하기, 어휘들끼리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살피기 등의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다.<sup>15</sup>

다음으로 '사고력'에 대한 평가 체제는 기존의 사고력 평가시험에서 사용하는 틀을 원용할 수 있다. '이해능력', '추론능력', '비판능력'으로 삼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이다. 이해능력은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다. 구체적인 시험 문항으로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제시된 정보와의 일치 여부, 주요 개념어에 대한 지시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찾기, 주제나 화제 찾기 등이 있다. 추론능력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다.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추가해야 할 전제를 찾기, 정보에서 제시된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기, 글의 문맥과 논리 구조를 파악하여 빈칸을 채우기, 수정하기 등을 들 수 있다. 비판능력은 정보에 대한 종합적·메타적 사고하기 능력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글의 구성을 이해하기, 주장과 근거를 찾고 분석 및 평가하기, 주장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력 평가를 위한 국어시험의 체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어휘'는 어휘력이 언어능력의 기초가 된다는 원리뿐 아니라, 실제로 어휘력 검사가 언어능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법학전문대학 입학시험에서 사고력 영역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었다(민찬홍, 앞의 논문, 277쪽).

평가영역(대상)		평가목표와내용
기본 국어 능력	기초표현 능력	공공언어 표현 정확하게 쓰기 :작성 원리 적용하여 수정하기, 개요 작성하기 등
	기초어휘 능력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 지시대상 찾기, 지시 관계 파악하기, 맥락적 의미 파악하기 등
사 고 력	이해능력	정보에 대해 객관적·사실적으로 이해하기 : 개념어 이해하기, 주제·화제 찾기, 글에 대한 사실적 이해하기, 정보간 일치 여부 확인하기 등
	추론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하기 : 결론 찾기, 전제 추가하기, 원리 적용하기, 글의 문맥과 논리 구조를 파악하여 빈칸 채우기, 문맥상 오류 찾아 수정하기 등
	비판능력	정보에 대한 종합적·메타적 사고하기 : 글의 구성을 이해하기, 주장과 근거 찾고 분석 및 평가하기, 주장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비판)하기 등

사고력을 중심으로 한 이 체제가 수립되면, 각 영역별 평가 대상의 사고력에 따라 문항을 유형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실제적인 문항 구성의 차원에서도 일관성을 갖게 되며, 유형별 난이도 설정도 훨씬 효과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다.<sup>16</sup>

이 체제의 각 영역별 해당하는 문항의 사례를 보자.

문제 9.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16 공무원 국어시험에 대해 문제의 수준과 난이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예컨대,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만 해도 주어진 문제 상황을 추리·분석하고 해결하는 고등 사고능력을 측정하는데, 국가 운영 인력을 뽑는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휘력과 문해력만 본다는 게 놀랍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몇몇의 경우 단순 암기 내용을 테스트하는 아주 수준 낮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윤석만, 「‘갈라파고스’ 공무원 시험이 공시낭인 부추긴다」, 『중앙일보』, 2022.06.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579>). 단순 암기형 문항의 경우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다. 지문이 주어지는 독해 문항이라 하더라도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습했던 익숙한 문학작품이라면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고 배경지식으로 쉽게 문항을 풀 수 있다. 결국 국어시험의 난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흔히 한자어나 어문규정 문제로, 상용되지 않는 한자어나 까다로운 어문규정을 묻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시험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평가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점수가 결정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 ① (가)에 따라 '아래+집'은 '아랫집'으로 적는다.
- ② (가)에 따라 '쇠+조각'은 '쇠조각'으로 적는다.
- ③ (나)에 따라 '전세+방'은 '전셋방'으로 적는다.
- ④ (나)에 따라 '자리+세'는 '자릿세'로 적는다.

[2022 국가9급]

문제 10.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寂寞荒田側 寂寞한 목정밭 가에  
 繁花壓柔枝 만발한 꽃이 보드라운 가지를 누르네  
 香經梅雨歇 향기는 장맛비 지나면 얼어지고  
 影帶麥風歛 그림자는 보리바람 맞으면 흔들리겠지  
 車馬誰見賞 수레 탄 사람들이 누가 보아 주리  
 蜂蝶徒相窺 벌과 나비만 기웃거리는구나  
 自慙生地賤 천한 땅에 태어난 것 부끄러우니  
 堪恨人棄遺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어찌 원망하리오.

최치원, <축규화(蜀葵花)>

이 시는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 시절, 관직에 오르기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길가의 축규화에 자신을 투영하여 출중한 능력에도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었던 서글픈 처지를 노래하였다. ㉠ 이 시에서 “만발한 꽃”은 작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빼어난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등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 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등용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레 탄 사람들”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 “수레 탄 사람들”과 자신을 이어줄 수 있는 “벌과 나비” 역시 절실했다. 이 작품에서 ㉣ “천한 땅”은 시적 대상인 축규화가 피어난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작가 자신이 태어난 땅을 의미하기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2021 지방7급]

문제 11.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

꿀 수 없다. 하지만 언어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변화 과정을 거친다. 언어의 변화 원인에는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등이 있다. 이로 인해 단어의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단어의 의미 변화는 대략 세 유형으로 나뉜다. ‘뫼(뻬)’는 ‘밥’ 또는 ‘진지’를 뜻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제사 때 신위 앞에 올리는 진지로 국한해서 쓰이고 있다. ‘지갑’은 원래 종이로 만든 것에만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가죽이나 형겔 따위로 만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사용한다. ‘어여쁘다’는 본래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아름답다’로 그 뜻이 바뀌었다.

- ① ‘지갑’의 의미가 변화한 것은 언어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 때문이다.
- ② ‘얼굴’은 ‘형체’를 뜻하였으나 ‘안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뀐 것은 ‘지갑’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
- ③ ‘인정’은 ‘뇌물’을 뜻하였으나 ‘사람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어여쁘다’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
- ④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일부를 지시하였으나 무생물에도 사용하게 된 것은 ‘뫼(뻬)’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

[2023 지방7급]

문제 12.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계급사회였지만, 현대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을: 현대 사회는 고대나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족지위가 성취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빈부 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잖아. ‘금수저’, ‘흙수저’라는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 빈부 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병: 현대사회가 빈부 격차로 인해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계급사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계급사회라고 말하려면 계급 체계 자체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각종 문화나 생활 방식 전체를 특정한 계급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따라서 현대 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는 어려워.

갑: 현대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 하지만 인간 생활의 근간은 결국 경제 활동이고,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 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어. 또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급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 ①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한다.
- ②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 ③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하지 않지만 을의 주장과는 대립한다.

[2024 국가9급]

문제 9는 기본국어 능력의 기초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에 해당한다.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바탕으로 표현의 정오를 판별해야 하는 문제이다. 문제 10은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문학작품과 그에 대한 해석을 함께 실어 놓은 지문을 대상으로 정보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문제 11은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에 해당한다. 문제 12는 비판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에 해당한다. 지문을 통해 주장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선지의 정오를 판별해야 한다.

문제 9~12는 비교적 최근 공무원 국어시험에 출제된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로서, 국어시험 출제 기조를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항들의 특징은 평가의 대상이 표현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비판능력 무엇이든 간에 지문에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을 통해 종래의 국어지식이나 국어능력에 관한 새로운 문항 개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 어문법에 관한 내용이나 문학작품을 분석한 글을 지문으로 활용하여 사고력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대화의 예절이나 규범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닌, 대화에서 이뤄지는 주장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문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 선발이라는 위상에 맞는 시험의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험의 효용성이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의 내용 측면, 시험의 관리 측면, 시험의 절차 측면 등 다방면에서 효용성을 가져야 한다. 시험의 관리나 절차 등은 대한민국의 높은 수준의 공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문제시되는 것은 대부분 시험의 내용 측면이다. 시험 내용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타당성, 신뢰성, 난이도가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타당성은 시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의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측정하는 정도, 신뢰성은 시험 내용이 시험 측정 도구로서의 일관성 정도, 난이도는 시험 내용의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sup>17</sup> 공무원 국어시험이 기존의 암기력 평가에서 사고력 평가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시험 내용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사고력 평가 유형에 따른 문항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난이도 조정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7 임성근 외,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2, 13~14쪽.

## 5. 결론

공무원 국어시험은 그동안 시대적·사회적 변화상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아왔다. 공무원 직무와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비난받고, 다른 채용시험의 성격과 너무 동떨어져 호환성이 없다고 지적받았다.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험의 출제 기조 및 평가 방식을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하였다. 곧이어 새롭게 개발한 예시 문항이 공개되었으며 2025년부터 바뀐 출제 기조와 방식에 따라 시험이 실시된다고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임에 분명하다. 본 논의는 이러한 대의에 따라 공무원 국어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고력 평가를 위한 국어시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시도되는 공무원 국어시험 개선이 실효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시험 목표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시험에 대한 기본 체재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시험 체재를 적당히 수정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롭게 체재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고력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의 범주화, 범주에 따른 항목화, 항목별 문항 설계의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래야 구체적인 문항 작성에 있어서도 지침이 마련되며, 물 음 구성·지문 선정·선지 구성 등에 있어서 형식성과 일 관성을 갖출 수 있다.

다음으로 현 상황에서 국어시험의 성격과 위상, 즉 공무원 국어시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사고력 평가시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존의 사고력 평가시험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공무원 국어시험이 PSAT의 언어논리시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어시험이 언어논리 시험은 아닌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서의 국어시험이며, 영어시험과 한국사시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기능하는 것이다. 응당 사고력 평가라

는 측면에서 다른 시험과 유사한 점이 있겠지만 국어시험만의 고유성도 있어야 한다. 국어나 언어 관련된 모든 시험이 획일화되는 것은 채용시험이라는 큰 체계에서나 공무원시험의 장기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사고력 평가라는 틀 속에서 국어 지식이나 국문학 지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국어시험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새롭게 바뀐 공무원 국어시험이 실시될 것이다. 이 시험을 통해 채용 분야나 관련 교육 영역을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의 국어시험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김명석, 「PSAT 언어논리영역의 성격과 성과」, 『국어교육연구』 31, 국어교육학회, 2008.
- 민찬홍, 「사고력 시험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 『논리연구』 16(2), 한국논리학회, 2013.
- 신성원, 「순경채용시험의 국어과목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2(3), 한국민간경비학회, 2023.
- 양현모, 황성원,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부처별 자율채용제 도입의 검토』, 한국행정연구원, 2009.
- 이형래, 「직업문식성 평가로서의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분석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1, 2008.
- 임성근 외,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2.
- 최수정, 「PSAT(공직적격성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인간과 자연』 4(2), 한국인간과자연학회, 2023.

## 2. 기타 자료

- 공무원임용시험령(<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 국어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
- 문학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문학진흥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
- 윤석만, 「'갈라파고스' 공무원 시험이 공시낭인 부추긴다」, 『중앙일보』, 2022.06.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579>)
- 인사혁신처,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9급 공무원 시험 출제기조 바꾼다」, 보도자료, 2023.11.20.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3753&category=&pagelx=](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3753&category=&pagelx=)

## Abstract

##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Civil Servant Korean Exam Focusing on Thinking Ability Evaluation

Oh, Se-Jeong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discussion was intend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ivil servant Korean exam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and social demands, the direction and goal of change in the civil servant Korean exam are clear. So far, the civil servant Korean exam has been about asking about knowledge as 'general education,' but now the emphasis should be on testing the 'operational skills' necessary for job performanc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hange to an evaluation of thinking ability to think through presented sentences in Korean and solve given problems. In order to evaluate thinking ability efficiently, the civil servant Korean exam format must be established systematically. It is important to categorize the thinking abilities that are the subject of test evaluation, in this discussion, a categorization plan divided into basic Korean language ability (basic expression ability/basic vocabulary ability) and thinking ability (comprehension ability/reasoning ability/critical thinking ability) was presented. In test items development, they should be typ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ategories, have consistent formality, and designed so that problems can be solved without the background knowledge.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identity and status of the Korean language test for civil servants, passag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knowledge or Korean literature should be actively utilized.

**Keywords** civil servant test, civil servant Korean exam, thinking ability evaluation, Public Service Aptitude Test(PSAT), basic Korean language ability, comprehension ability, reaso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ability

이 논문은 2024년 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6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